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6월



복음 나누기

연중 제11주일 (6월 13일)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마르 4,26-34)



하느님의 나라

그림 정미연 소화머레사 | 화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나무보다 커져 우리에게 평안한 그늘과 안식을 줍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나 곡식의 신비를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한없음을 눈물겨워 합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26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마르 4,27)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나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마르 4,30)

나의 삶의 과정이 하느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있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엄마 품에 잉태되는 순간 따뜻한 품속에서 양분을 받으며 자라다 때가 되면 큰 울음을 터트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탄생의 순간이다. 그렇게 웅알이를 하며 자라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며 뒤집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앉으려, 그리고 주변을 활용해 서려고 발버둥을 친다. 드디어 서게 되면 걸으려 한다.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면 뛰려고 발버둥을 친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태어나서 웅알이를 하던 시절부터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조금씩 조금씩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것이다. 작은 겨자씨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 간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시간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 시간들이 은총의 시간이길 바란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